

LOCAL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진도, 국내 첫 AI 기술 활용 농수특산물 판매 개시

완도전통시장서 ‘달빛 나들이’ 관광 콘텐츠 자리매김 기대

완도군이 완도전통시장에서 가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 ‘달빛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달빛 나들이는 10월 첫째, 셋째 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는 상인들의 참여로 운영되며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와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가족 체험 프로그램, 경품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달빛 나들이 행사가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가을 관광 성수기와 연계해 마련한 행사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빛 나들이는 지난 6월에도 4회 운영되며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해남, 농어촌 하수도 환경개선 송지 어란·마산 안정지구 대상

해남군이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환경 개선에 나선다.

30일 군에 따르면 2026년도 신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171억원을 확보했다. 신규 사업지는 송지 어란지구와 마산 안정지구로 총 3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송지 어란지구에는 총사업비 54억5500만원이 투입돼 하루 140㎥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3.58km가 시설되며, 291가구에 배수설비가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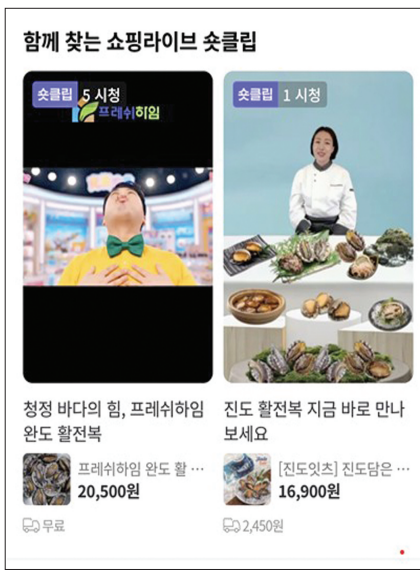
마산 안정지구에는 136억4800만원이 투입돼 하루 100㎥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10.598km, 312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한다.

군은 내년 설계에 착수하고 2027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화원 화봉·송지 영평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비롯해 구산·징의·마고, 화산해장, 복일 갈두, 화산 대지,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과 해남읍 외 4개소 노후관로 정비 등 계속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24시간 비대면 판매 서비스...물류거점센터도 구축 실시간 생방송...안정적 판로 확보·매출 증대 기대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이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민·관 협력 상생협력 사업으로 ‘K-먹거리 산업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군은 사업을 주관하는 ㈜스마트알뜰장터와 함께 지역 통합상표인 ‘진도이츠(Jindo eats)’를 출시하고 인공지능 실시간 생방송 판매(AI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진도 농수산물을 24시간 판매한다.

또 물류거점센터(MFC)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진도이츠 네이비스트아관’과 ‘인공지능 실시간 생방송 판매’를 연계해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비대면 판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군의 농어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매출을 증대하고, 진도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릴 예정이다.

물류거점센터 기반의 유통물류 운영 체계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물류, 정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통합형 시스템’이다.

반응형 인공지능 실시간 생방송 판매 구조는 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방식이며, 인공지능 판매자(AI 쇼호스트)가 2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Q&A)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홍보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특히 이번엔 군에서 선보이는 인공지능 판매자는 진도의 정감 있는 사투리를 사용하도록 개발해 진도만의 특색을 부각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월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디지털 유통물류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판매 구조를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민관협력 을 통한 지역 상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순천,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온힘

시·의회·소상공인단체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순천시는 최근 시민로 일원에서 열린 ‘순천 올랑가 디지털 페스타’ 행사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순천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먹깨비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먹깨비 이용 확대, 신규 기맹점 모집, 공동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 대비 중계수수료가 1.5% 수준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금액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전망된다. 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축제 기간에는 시민에게 자유 쿠폰을 지급해 앱 이용을 장려하고, 온라인 공인연합회 순천시지부, 이벤트트를 진행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상권 회복과 상생의 배달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공 배달 플랫폼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나주시는 최근 ‘2025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중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특별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사진은 중국 태주시 문화공연 대표단 공연 모습.

‘나주 영산강축제’ 국제 교류의 장 된다

시, 중국 태주시와 교류...문화공연 대표단 22명 공연 예정

나주시가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태주시 문화공연 대표단을 초청해 특별한 문화예술 공연과 교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0일 시에 따르면 ‘2025 나주영산강 축제’에서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중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특별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대표단은 태주시문화방송관광체육국 부국장을 비롯해 태주시민악단, 태주난타극단 등 공연단원과 관계자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축제 무대에서는 중국 전통 악기 연주, 무용, 연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현지 문화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태주시 대표단의 공연은 축제 기간 중 두 차례 진행된다.

10월 11일에는 세계문화공연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12일에는 국제교류도시 초청 공연에서 중국 전통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대표단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산림자원연구원 메타세

쿼리아길 등 주요 문화 및 관광지를 방문해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류가 양 도시 간 문화적 유대와 상호 이해를 한층 강화하고 2025 나주 영산강축제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국제적 활발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병태 시장은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자매결연 도시로 격상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세계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추석 연휴 고흥 녹동항서 ‘드론·불꽃쇼’ 향연

4·6·7일 드론 1500대 투입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고흥 녹동항에서 ‘드론·불꽃쇼 향연’이 펼쳐진다.

고흥군은 추석을 맞아 10월 4일, 6일, 7일 3일간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드론쇼 및 해상불꽃쇼’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달빛미술관(10월 4일) △달도끼와 함께하는 추석(10월 6일) △고흥, 가을나들이(10월 7일) 등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낮 시간에는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 던지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공간이 마련돼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특히 추석 당일인 6일에는 1500대 규모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드론쇼’가 펼쳐진다.

드론에 불꽃 장치를 부착해 연출하는 이번 쇼는 빛과 불꽃,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하며, 고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명절의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군은 연휴 기간 녹동항 일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및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해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했다. 현장 교통통제, 질서유지 인력 배치, 응급의료 체계 등을 점검하며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